

전북현대 22경기 멈추지 않는 무패행진

홈에서 울산현대 맞아 2대1 짜릿한 역전승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질주가 심상치 않다. 개막 이후 21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던 전북은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현대 더비 라이벌 울산현대를 상대로 2대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연속 무패 숫자를 22로 늘렸다.

전북은 경기 시작부터 거세게 몰아쳤지만 효율성 있는 공격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원정팀인 울산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전반에만 골대를 두 번이나 강타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연출했다. 선제골 역시 울산의 몫이었다.

후반 20분 멘디의 패스를 김인성이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전북에는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로페즈가 있었다.

로페즈는 후반 31분 페널티 박스 왼쪽 근방에서 그림같이 갑작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2분후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이 친정팀에 비수를 꽂으며 역전골 득점에 성공했다.

이날 전북의 모습은 시즌 초반 손발이 맞지 않아 간신히 무패행진을 이어가던 전북의 모습이 아니었다.

리그 1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최강자의 모습이었다.

전북은 주포 이동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적생인 이종호와 로페즈의 활약에 힘입어 뛰어난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시즌 주축이었던 이재성과 전성기적 기량을 되찾은 김보경 그리고 부상에서 복귀한 이호는 과거 전성기 바르셀로나의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를 연상시키는 역삼각형 중원을 구성해 탄탄한 경기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이동국의 복귀, 김신욱의 기량회복 등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 전북의 무패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기록을 써가고 있는 최강희 감독은 울산전 직후 "우리 선수들의 간절함과 자신감, 홈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역전할 수 있었다"며 "경기 전 선수들에게 어떤 팀과도 홈에서 경기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라 했는데 선수들이 정신집이 잘 된 것 같다.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고 당분간 좋은 경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팀의 좋은 분위기와 무패 행진 기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라이벌 울산현대를 상대로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이 친정팀에 비수를 꽂으며 역전골 득점에 성공했다.

K리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무패 우승의 기록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 있는 전북현대가 무패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새울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손호준, MBC 새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출연

배우 손호준(32)이 우직한 인권 변호사 이장고로 MBC TV 새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극본 김시경·연출 윤재문)을 이끈다.

'불어라 미풍아'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복 출신 1000억 원 대 자산가 할아버지가 우연히 자신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드라마다.

월가다 탈북 여성 미풍(임지연)과 서울총농 인권변호사 이장고가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과 소중한 가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손호준이 연기할 이장고는 정직한 눈빛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듬직한 남자다. 손호준은 "시놉시스를 재미있게 읽었다"며 "분명히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시청률 30%에 육박하는 성적을 남긴 히트작 '장미빛 연인들'의 윤재문 감독과 김시경 작가의 재결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가화민사상' 후속으로 다음 달 첫 방송된다.



/김민근기자

김현주, JTBC '판타스틱' 서 드라마 작가로 변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체질상 울고 짜는 신과 따위는 개나 쥐 버리고 오늘을 화끈하게 사는 멘탈 갑(甲)이다. 누구에나 거침없이 핵 직구를 날린다. 그러나 약점이 있다. 가족에게 한없이 약하다.

탤런트 김현주(39)(사진)가 JTBC 금토 드라마 '판타스틱'에서 '드라마 작가'로 변신한다. 극중 이름은 '이소혜', 장르를 일인자로 수많은 마니아를 거느린 '갓소혜'로 분한다.

제작진은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사는 드라마 작가 이소혜라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김현주 특유의 감성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덧입혀져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작진은 "슬퍼할 시간도 없기에 화끈하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만끽하며 사는 게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인지를 두 사람의 짧고 짜릿한 로맨스를 통해 유쾌하게 그린다"고 설명했다.

'청춘시대' 후속으로 오는 9월 2일 밤 8시 30분에 방송한다.



/김민근기자

오마이걸, 파파아 '내 애길 들어봐' 리메이크

그룹 '오마이걸(OH MY GIRL)'이 선배 그룹 '파파아'의 2000년 히트곡 '내 애길 들어봐'를 리메이크 한 곡으로 다음 달 초 컴백한다.

'내 애길 들어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사로 큰 인기를 모았던 파파아의 데뷔곡이다.

오마이걸 버전의 '내 애길 들어봐'는 가수 하하와 스컬의 피쳐링으로 레계종 사운드를 더해 더욱 시원하고 상큼한 분위기로 새롭게 재탄생한 곡이다. 특히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친근한 매력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오마이걸은 다음달 21일~22일 양일 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여름동화'를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시키며 '대세' 걸 그룹의 면모를 드러냈다.

/김민근기자

민아, 가수에서 연기자로... 드라마 첫 주연 성공

"걱정투성이죠. 고민투성이구요. 부족한 게 많은 민아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게 결코 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SBS TV 미니 공심이를 마치고 만난 민아(28)는 벌써 백전백승의 전투태세로 무장한 모습이다.

실제 만나본 민아의 최고 장점은 '지피보다 자기를 안다는' 지기가 강했다. 아이돌에서 연기자로 첫 주연작을 성공적으로 끝내 도취했을 법도 한데, 냉정했다. "10점 만점에 4점 정도예요."

스스로 연기접수를 매긴 민아는 그저 "자신은 공심이에 어울렸던 민아였을 뿐"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자평했다.

미니 공심이가 애초에 엄청난 기대작은 아니었다. 드라마 주인공 '공심'을 민아를 캐스팅한 건 SBS에서도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연기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룹 '걸스데이' 멤버로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비된 이미지가 강했다. 방송 전 '민아가 무슨 주인공이



냐는 비난이 줄을 이은 이유다. "저도 걱정이 됐는데요.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관찰을까요?'라고 되물으면서 대부분을 봤어요."

부족한 점을 알고 있어서 겁이났고 부담감이 컸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려는 '우레'가 됐다. 미니 공심이는 아이돌에서 '연기'가 된 민아의 재발견이 가장 큰 성과다.

꺾임없이 상대 배우 남궁민과 백수찬 PD의 가르침 덕으로 공을 돌렸지만 어느 속담처럼 물가로 끌려갈 수는 있어도 결국 물은 마시는 건 민아 자신이다.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공심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큰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남궁민 오빠와 감독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공심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이 될 때마다 다 더 대본을 열심히 봤고요"

여느 드라마보다 촬영은 더 강행군이였다. 밤을 새는 건 예사일이었고, 나흘 동안 40분 잔 적도 있었다.

사흘째 이어진 인터뷰에 목소리는 이미 잔뜩 가라앉아 있었다. 민아는 "병원에 갈 시간도 없다"며 물과 함께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

서는 다음날 있는 광고 촬영 때문에 미용실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한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긴 민아는 예뻐다. 집에서 사회에서도 구비본편 미운오리새끼 공심이가 백조가 되는 과정은 인간 방민아가 사랑받는 연예인 민아로 거듭나던 과정과도 닮았다. 데뷔 초 팀의 부진으로 걸스데이를 알리기 위해 온갖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장된 애교와 발랄함으로 이미지를 소진하며 '귀여운 척 한다' '못생겼다'고 쏟아지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그때는 제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쓰러워요. 어렸기 때문에 사랑조차도 버거웠는데, 그 와중에 안 좋은 말에 상처도 받았고요. 그게 조금 아니었으니까... 풀면서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힘든 게 뭣게 와서 한동안 좀 많은 걸 회피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은 모르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